

혁신과 클러스터를 위한 프랑스의 경쟁거점 정책 (II)*

- 프랑스의 경쟁거점(Pôle de compétitivité) 정책은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, 교육 기관, 민간·공공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 성격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정책 및 클러스터 구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임
- 2005년 2월까지 105개의 프로젝트를 접수받아, 3단계의 심사를 거쳐 7월 총 67개의 경쟁거점이 최종 선정됨
 - 세계적 경쟁거점(6개),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(9개), 국가적 경쟁거점(52개) 등 3가지 유형으로 차별화하여 선정하였으며, 선정된 경쟁거점들의 지리적 특성, 주체들의 구성 및 성격이 매우 다양함
- 경쟁거점의 향후 운영과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사업추진과 평가를 담당할 위원회를 중앙정부와 지역 차원에서 각각 구성하였음
- 10월 총 55개 경쟁거점에 대한 R&D지구 구획안이 승인되었으며, 차후에는 구획을 법정화하고, 경쟁거점과 해당 레지옹(광역자치단체) 임명도지사 간에 협약(contrat-cadre)을 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
- 경쟁거점 정책 지원예산으로는 3년 동안 매년 총 15억 유로(1조 8,480억 원)가 책정되어 있음

* 국토정책Brief 82호(2005. 4. 4 발간) 「프랑스형 혁신도시 경쟁거점(Pôle de compétitivité)」에 대한 후속편임

1.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

- 2002년 12월 국토개발장관회의(CIADT)에서 프랑스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거점 정책을 제안
- 2004년 9월 국토개발장관회의에서 경쟁거점 정책의 배경, 개념, 지원내용 등을 발표
- 2004년 11월 수상회람을 통해 경쟁거점 정책의 차후 추진 방식과 일정(선정절차, 표본 지원양식 등)을 발표
- 2005년 2월까지 민간기업, 대학, 연구소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 등으로부터 총 105개의 프로젝트를 접수
- 2005년 7월 국토개발장관회의에서 총 67개의 경쟁거점을 선정
- 2005년 10월 국토경쟁력개발장관회의(CIACT)¹⁾는 총 55개 경쟁거점에 대한 R&D지구 구획안을 승인

2. 경쟁거점의 선정

- 3차에 걸친 심사 과정
 - 사업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공모 시작 → 제출된 프로젝트에 대해 해당 레지옹이 1차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범정부 작업단에게 제출 → 프로젝트 내용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들(산업, 국방, 농업, 보건, 교통, 과학기술...)이 2차 심사 → 재계, 학계 등의 전문가 40인이 3차 심사 → 경쟁거점 선정

심사 기준	• 고부가가치와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• 높은 성장 잠재력을 담보하며 세계적인 중심기능을 할 수 있을 것 • 양질의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주체들 간 파트너십이 공고할 것 • 효율적인 경제개발 및 혁신을 위한 전략 목표와 방안들이 명확할 것
-------	---

1) 국토개발장관회의(Comité interministériel d'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)가 최근에 국토경쟁력개발장관회의(Comité interministériel à l'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, CIACT)로 개편되어 2005년 10월 14일 제1회 회의가 개최됨

○ 3가지 유형의 총 67개 경쟁거점을 선정

- 응모 프로젝트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‘세계적 경쟁거점’, ‘세계적 경쟁거점 후보’, ‘국가적 경쟁거점’ 등 3가지 유형의 경쟁거점을 선정

- 세계적 경쟁거점(Pôles de compétitivité mondiaux):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의 수가 5,000인 이상(총 6개)

예	• 프로방스-알프-코트-다쥐르 레지옹의 원거리통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(STMicroelectronics 등이 주체) • 리옹의 Lyonbiopole 세균학 프로젝트 (Grand Lyon 등이 주체) • 그레노블의 Minalogic 나노기술 프로젝트 (AEPI 등이 주체)
---	--

-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(Pôles de compétitivité à vocation mondiale): 현재는 역량이 미흡하나 장차 세계적 경쟁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경쟁거점(총 9개)

예	• 파리의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(ARD Paris Ile-de-France 등이 주체) • 페이-더라와 레지옹의 종자·원예·수목 프로젝트 (CIVS 등이 주체) • 브레스트와 툴롱의 조선, 어업 등 바다관련 Sea-Nergie 프로젝트 (Thales 등이 주체)
---	--

- 국가적 경쟁거점(Pôles de compétitivité nationaux): 프랑스 전역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경쟁거점 (총 52개)

예	• 노르망디 레지옹의 Normandy Motor Valley 엔진산업 프로젝트 (Madrillet 테크노폴 등이 주체) • 랑그독-루시옹 레지옹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(페르피냥 대학 등이 주체) • 오베르뉴 레지옹의 식물 바이오기술 산업 프로젝트 (Limagrain 등이 주체)
---	---

3. 경쟁거점에 대한 지원

○ 당초 계획은 경쟁거점으로 15개 정도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3년 동안 매년 총 7억 5천만 유로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선정 경쟁거점의 수가 많아지자 매년 총 15억 유로(1조 8,480억 원)를 지원하기로 결정

- 이 중 3억 유로는 조세 감면을 통해, 4억 유로는 부처 지원, 8억 유로는 CDC, ANR, OSEO-ANVAR 등 정부 공공사업은행,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이 지원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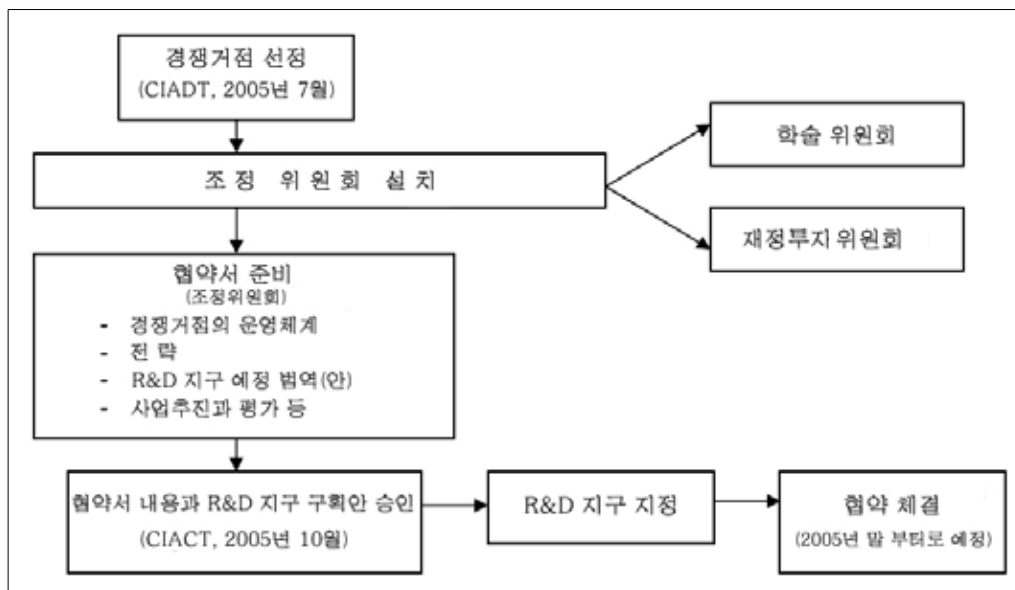
2) CDC(Caisse des dépôts et de consignations): 공공사업은행, ANR(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): 과학청, OSEO-ANVAR (Agence nationale de l'innovation):과거 ANVAR를 2005년 OSEO-ANVAR로 개편

4. 경쟁거점 선정 이후의 절차

-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경쟁거점 정책을 추진
 - 중앙정부 차원: 범정부 작업단(Groupe de travail interministériel, GTI)에게 경쟁거점들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담당하도록 함
 - 경쟁거점 차원: 레지옹 임명도지사(préfet)가 각 경쟁거점마다 조정위원회(Comité de coordination dédié)를 설치

범정부 작업단	· 관련 정부부처와 정부공공기관 파견인, 전문가들로 구성 · 경쟁거점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업무를 맡음
조정위원회	· 관련 정부부처와 정부공공기관 레지옹 지부 파견인, 필요한 경우 대학 장학사나 총장, 지방자치단체 파견인, GTI 담당자 등으로 구성 · 재정투자자위원회와 학술위원회로 나뉘지며, 특히 학술위원회는 경쟁거점 사업의 추진과 성과 평가를 맡음

〈경쟁거점 선정 이후의 절차〉



- 경쟁거점 조정위원회는 레지옹 임명도지사와 협약체결을 추진
 - 조정위원회는 GTI와 협력하여 협약(contrat-cadre) 체결을 준비함
 - 협약체결은 경쟁거점과 해당 레지옹 임명도지사 사이에 이루어지며, 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

-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

- 해당 경쟁거점의 성격, 관리운영: 경쟁거점의 구성원, 법적 지위, 법적 대표자, 프로젝트 승인 절차 등
- 경쟁거점의 경제발전 전략 및 우선추진 사항
- 조세감면을 위해 구획되는 R&D지구의 공간 범역(안)을 제안
- 경쟁거점의 성과 및 평가 방법

○ R&D지구의 지정

- 2005년 10월 열린 제1회 국토경쟁력개발장관회의(CIACT)는 총 66개⁴⁾ 경쟁거점 중 진척도가 빠른 55개 경쟁거점에 대해 R&D지구 구획안을 승인함⁵⁾
- 조만간 수상령(décret) 제정을 통해 R&D지구를 지정할 예정임

5.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주요 시사점

- 경쟁거점 선정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응모한 것은 프랑스 산업 및 지역의 발전의지와 역동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되고 있음
- 선정된 경쟁거점들의 지리적 특성과 주체가 다양하며, 경쟁거점을 3가지로 유형화하여 지정함으로써 각각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지원과 정책수립을 용이하게 함
- 기업, 교육·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,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따르며,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, 민간과 공공 간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- 차후 경쟁거점의 운영과 사업추진, 평가에 있어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하여 별도의 기구(GTI, 조정위원회)를 설치하였으며, 경쟁거점 간의 연계와 협력을 장려함

서태성_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환경연구실장 (tsseo@krihs.re.kr)

정옥주_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(OKjeong@krihs.re.kr)

4) 2005년 7월 경쟁거점 선정 직후 두 경쟁거점이 합병하여 총 66개가 됨

5) 나머지 11개 경쟁거점에 대해서는 11월 중순 경 CACT 승인이 예정되어 있음